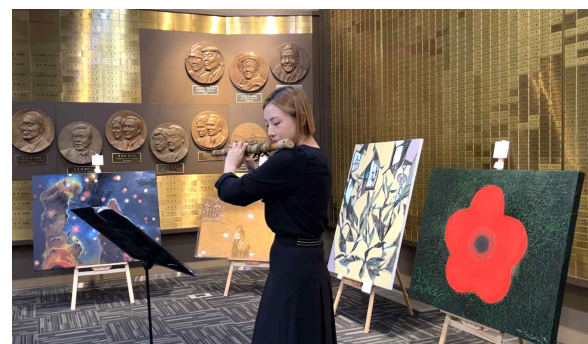




서울대동문전 '숨은예술가들' 성황리 개최

본회(회장 권영걸)가 서울대학교총동창회(회장 김종섭)와 공동주최한 서울대 동문 전시회 '숨은예술가들'이 지난 10월 13일부터 22일까지 SNU장학빌딩 2층 베리타스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전시의 참여 작가는 미술을 전공하지 않은 서울대 동문들로, 전시 경험이 많지 않거나 전문적인 예술가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내면을 그림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열정과 진심을 가진 서울대 동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다. 화학전공 후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은퇴해 작품활동을 하는 동문, 음악전공 후 아트페어 오프닝 연주에서 만난 화랑 주인과 인연이 되어 어릴 적 꿈이던 화가로 활동하고 있는 동문을 비롯해 의료인, 법조인, 교원, 사업가, 목사 등 총 82명의 다양한 전공과 직업적 배경을 가진 동문들이 작품을 출품하였으며, 특별 찬조로 미대 동문 작가 10명의 작품도 전시되었다. 13일 오후 4시에 개최된 개막행사에는 총동창회 이경형 상임부회장, 송우엽 사무총장, 이승무 관악경제인회 사무총장과 본회 유인수 명예회장(66회화)을 비롯한 내빈 및 작가 등 많은 분들이 참석하였다. 개막식 사전 행사로는 서울대 음대와 미대를 졸업한 박수빈(12국악) 동문이 참여



작가들의 발걸음을 응원하는 궁중음악 '취타'와 모두의 평화를 기원하는 민요 '태평가를 연주하였다. 이어 본회 김홍규(83공예) 상임부회장의 경과보고 및 유인수 명예회장의 인사말, 이경형 총동창회 상임부회장의 축사, 김소선(63조소)·김병종(74회화) 작가의 격려사가 있었다. 또한 찬조 출품한 작가들의 작품설명과 전시 참여 동문들의 소감을 듣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활동하면서 레고블럭으로 키네틱아트를 선보이는 원종윤(99전기공학) 동문, 음악대학 작곡과 교수로서 작곡의 세계와 미술의 세계를 연결한 작업을 선보인 백승우(82작곡) 동문 등이 전시에 참여한 소감을 밝혔다. 바이올리니스트로 활동중인 KoN(이일근·00기악) 동문은 "음악은 완성되는 순간 기화되어 사라지지만 그림은 기록으로 남길 수 있어 음악에서 느낀 공허함이 미술로 보완이 되었다."며 작품을 소개했다. 개막식이 끝나고 열린



축하연에서는 케이터링이 마련되었으며, 서로 만날 기회가 없던 각 분야의 동문들이 자신을 소개하고 서로의 작품에 대한 감상을 나누는 시간이 이어졌다. 많은 출품 작가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펼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본회와 총동창회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였다. 이번 전시는 수준 및 호응도를 살펴보기 위한 시범 전시로, 출품자들은 내년 4월에 한전아트센터(예정)에서 정식 개최될 '2024 숨은 예술가들'에 초대되며, 이때 역량이 뛰어난 동문은 본회 명예회원으로 영입해 함께 전시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본회소식

**‘서울대미술인 1946-2023’ 발간
사전구매 신청안내**



본회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진행된 자료조사를 토대로 ‘서울대미술인 1946-2023’을 발간해 11월중 배포할 예정이다. 도록은 소장가치를 높이고자 한정판으로 제작되며 사전구매 신청을 받는다. 도록에는 시각 예술분야는 물론, 운영사업체나 프로젝트, 영화, 공연, 저서 등 46학번 원로동문부터 2023년도 신입동문까지 3000여명의 미대 동문의 실적이 수록된다. 본 도록은 대외적으로는 서울대 미대 졸업생들의 활약상, 대내적으로는 선후배간의 인지도 향상, 나아가 미대 졸업 후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 가능성을 보여주는 전무후무한 자료집이 될 것이다. 도록은 페이지 당 9명의 이미지 및 경력이 수록되어 총 350p에 달하며 규격은 290x225mm이다. 사전신청은 부수 제한이 없다. 단, 올해 연회비 납부회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사전구매신청: 문자(010-5235-1946)로 신청(부수,성명, 학번, 학과 명시)
사전회원구매가: 5만원(정가 15만원)
납부계좌 : 농협 301-0252-4434-51 권영걸(서울대미대동창회)
문의: 02-555-1946

회장동정



명예의 전당 헌액

본회 권영걸 회장이 제9대 대한민국 디자인 ‘명예의 전당’에 헌액 된다. 격년으로 1명의 대한민국 대표 디자이너를 선정하는데, 6개월 간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명예의 전당(분당, 한국디자인진흥원 내 소재)에 흉상이 들어가고 공적이 기술된다. 후일에는 이 명예의 전당이 세종시에 건립될 디자인박물관으로 이전된다고 한다. 헌액식은 오는 11월 3일 오전 10시 코엑스 4층 401호에서 개최되며, 권회장의 제자들이 창작한 동영상 상영될 예정이다.

‘2023 AIoT Week Korea’ 축사

본회 권영걸 회장이 지난 10월 11일 코엑스에서 열린 ‘2023 AIoT Week Korea’의 개막식에서 축사를 맡았다. 인공지능과 융합된 지능형 사물인터넷을 의미하는 AIoT은 산업·경제·사회 전 분야와 융합해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는 핵심기술이다. ‘AIoT 진흥주간’은 지능형 사물인터넷의 혁신을 지속해서 견인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개최하는 행사로, 올해 10회째를 맞았다. 권회장은 축사에서 “도시 건축에 투입되는 첨단 기술은 국민 정주 공간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만으로 한정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스마트 건축물의 k-건축 수출 모델화, 그리고 AIoT 기술을 통한 지방 소멸 대응 등 건축 분야에서 첨단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강조했다.

나만을 위한 주문제작 반지

서울대미대동창회 산하 (사)에스아트플랫폼이 운영하는
에스아트몰에서 ‘ACCESSORY’ 카테고리를
새롭게 선보입니다.
조금씩 다르게 제작되는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반지를 소장해보세요.

서울대 동문 특별할인 제공
총동창회몰 ‘Mall SNUA’ 입점(브랜드관 S-ARTMALL)
(사)에스아트플랫폼 회원신청 및 작품등록에 대한 문의
02-877-8065 / sartmall.contact@gmail.com

S-ARTMALL

sartmall.com

모교소식

SNU 10-10 Project, 'Drawing with machines' 강연



지난 9월 26일 모교가 주관하는 SNU 10-10 Project의 일환으로 제시카 인(Jessica In)의 강연 'Drawing with machines'가 줌 (Zoom) 화상 플랫폼을 통해 개최되었다. 제시카 인은 런던을 기반으로 하는 건축가, 디자이너, 크리에이티브 코디이자 교육자이다. 그의 특화 분야와 관심사는 건축을 위한 계산, 상호 작용 및 제작 방법이며, 기술의 표현력 있는 잠재력을 탐구한다. 제시카 인은 현재 독립적으로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아키텍처, 디자인 및 설치 프로젝트에 협력하고 있으며 런던의 바틀렛건축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바틀렛학교에 합류하기 전에는 헤더윅 스튜디오(Heatherwick Studio)에서 디자이너로 일하였으며, Google Campus in Mountain View 및 Hudson Yards Vessel 조각 프로젝트의 프로젝트 조정 및 제작을 담당하였다. 또한 Minifie van Schaik Architects에서 프로젝트 건축가로 활동하여 Edithvale Wetlands Centre 및 Wattle Avenue House를 포함한 AIA 수상작 프로젝트를 담당하였으며, 멜버른의 RMIT 건축학부에서 학부과정 디자인 스튜디오를 주도하였다.

10월 '졸업하면 뭐할래?'



지난 10월 25일 모교 진로특강 '졸업하면 뭐 할래?'에서 지효근 테이블원 대표와 이성희 전시기획자가 강연했다. 지효근은 게임, 영화, 기타 대중 매체 컨셉 아티스트 및 아트 디렉터, IP 기획 크리에이터로 일하고 있으며 '어떤 컨셉 아티스트의 갈지자 커리어 목록'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했다. 이성희는 전시 기획자이자 아트딜러이다. 'Design Your Life'라는 제목으로 강의했다. 오후 7시에 시작한 이날 강의는 질의응답 시간을 포함하여 총 세 시간 동안 화상 회의로 진행되었다. 강의자별 강의 시간은 한 시간 반이었다.

'차세대 전문가를 위한 한국미술 워크숍' 모교 방문



지난 9월 7일,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주최한 '차세대 전문가를 위한 한국미술 워크숍(Next Generation Korean Art Workshop)'의 참여 대학(원)생 18인이 모교 동양학과 교수들의 스튜디오를 방문했다. 지난 9월 4일부터 8일까지 '한국의 현대 미술'을 주제로 열린 본 워크숍 일정에 모교 동양학과 방문이 포함된 것은 미국 다투머스대학의 김성림 교수 덕분이다. 김교수는 올해 연구년을 맞아 한국으로 돌아왔고, 모교 동양학과에서 강의를 맡으면서 한국국제교류재단과 모교 사이의 가교 역할을 했다. 이날 학생들은 김성희, 신하순, 조인호, 정해나 교수의 스튜디오를 차례로 방문했다. 스튜디오에서 작품을 감상하며 작품세계



에 관해 설명을 들었으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후 점심을 함께했다. 한편 '차세대 전문가를 위한 한국미술 워크숍'에는 한국미술 및 문화 전반에 깊은 관심이 있는 11개국 대학(원)생이 참가했다고 한국국제교류재단이 밝혔다.



동양학과 스케치여행

지난 10월 6일 동양학과 학생과 교수들이 함께 낙성대공원으로 스케치여행을 떠났다. 스케치여행은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낙성대공원에서 진행되었고 학생들은 각자 공원에 앉아 야외스케치를 했다. 이번 여행은 올해 봄 1박 2일로 다녀온 스케치여행 이후 두 번째 동양학과 단체 여행이다.

2024년도 제 39대 학생회 대표 선거

2024년도 모교 학생회 대표 선거가 오는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이루어진다. 입후보는 오는 11월 6일까지이다. 투표는 학생자치 온라인 투표 플랫폼 유니보트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치러진 모교 학생회 대표 선거는 가투표율이 21.6%로 과반수를 넘기지 못해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제 98조에 의거해 선거가 무산된 바 있다. 이번 선거가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것은 학생들의 투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선택으로 보인다.

극예술연구회 정기공연



루나자에서 춤을

모교 극예술연구회 114회 정기공연 '루나자에서 춤을'이 지난 10월 12일에서 14일까지 인문관 7(14동) 지하 1층 인문소극장에서 열렸다. 브라이언 프리엘의 희곡 '루나자에서 춤을'은 아일랜드에 위치한 작은 집에 사는 다섯 자매의 이야기이다. 이재인(21서양) 동문이 이번 공연을 기획했고 김하연(21서양)동문이 연출을 맡았다. 박단비(21조소), 양희서(22서양), 문세희(21조소), 조민경(23디자인), 유영선(21서양), 고가현(23공예), 김은주(20디자인), 정인경(23디자인), 윤희경(20디자인), 도민주(22디자인), 박설아(20디자인), 신지호(22디자인), 김동현(19서양), 최윤진(22서양), 곽상아(22서양), 민정원(22조소), 정지후(21동양), 김나연(23동양), 김하늘(23동양), 이명원(22조소), 김민재(22조소), 김현진(21동양) 동문의 참여로 구성되었다. 한편, 1966년부터 쉬지 않고 공연을 올려 온 모교 극예술연구회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움과 언제나 새로움을 좇으려 하는 도전 정신으로 대학 연극 예술을 선도해 왔다.

서울대소식



제77주년 개교기념식

서울대학교(총장 유홍림)는 지난 10월 15일 개교기념일을 맞아 13일 '제77주년 개교기념식'을 열었다. 기념식은 오전 11시 문화관 중강당에서 개최되었으며, 구성원 누구나 참석할 수 있었다. 행사는 국민의례, 표창,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발표, 유홍림 총장의 기념사와 김종섭 총동창회장의 축사, 축가, 교가 제창 순서로 진행되었다. 올해는 40·30·20년 근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장 기근속 표창, 봉사활동을 통해 선행 정신 함양에 공헌한 학생을 추천받아 수여하는 관악봉사상 표창, 사회봉사활동 체험수기 우수 학생 표창, 유관기관 표창, 지도교수 추천학생을 포상하는 교수협의회 회장상 표창이 진행되었다. 이어, 인격과 덕망을 겸비하고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해 서울대의 명예를 드높인 분들을 대상으로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선정증서를 수여했다. 서울대인 수상자로 조완규(48생물) 서울대 전총장, 이흥규(53법학) 전국무총리, 이해진(86컴공) 네이버(주) 창업자·라인(LINE)회장을 선정했다. 시상식은 개학 128주년·통합개교 77주년 개교기념식에서 열렸다. 이날 조완규 전총장이 수상자 대표로 소감을 전했다.



개교 77주년 특별전 '진리의 빛, 예술로 환히 밝히다'

서울대학교는 서울대학교미술관(관장 심상용) 광장에서 제77회 개교기념일을 맞이하여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 본연의 사명감을 예술을 통해 되새기는 특별전 '진리의 빛, 예술로 환히 밝히다'를 지난 10월 11일부터 오는 11월 26일까지 개최한다.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거장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을 한국의 현대미술가 선우항(91서양) 동문이 재현한 '아테네 학당에의 경의'가 미술관 야외 광장에 설치되는 이번 전시는 르네상스 프레스코화의 본질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원작이 담고 있는 진리 추구의 의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기획되었다. 지난 10월 11일 서울대학교미술관 야외 광장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유홍림 총장을 비롯한 학내외 인사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총장 환영사에 이어 박은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원장이 축사를 이어갔으며,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의 금관 5중주 및 성악 4중창 축하 연주로 성대한 개막식을 마무리 지었다. 한편, 선우동문은 모교를 졸업하고 프레스코의 현대적 응용과 확장 가능성을 주제로 한 연구 논문을 작성하여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창작 활동과 더불어 현재 모교에서 벽화 강의를 하고 있다.



박완서 아카이브 설치 협약식

서울대중앙도서관(관장 장덕진)은 지난 9월 19일 박완서 아카이브 설치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에는 협약의 주체인 유홍림 총장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김성규 교육부총장, 강창우 인문대학장, 장덕진 도서관장과 함께 호원숙 작가 등 박완서 작가의 유가족이 참석했다. 이날 유홍림 총장과 호원숙 작가가 박완서 아카이브 설치 협약을 체결했고, 김성규 교육부 총장이 미공개 일기를 포함하여 박완서 작가의 귀중한 자료를 기증해 준 유가족분들께 감사의 인사와 함께 감사패를 증정했다. '박완서 아카이브'는 한국 사회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남긴 서울대인에 대한 아카이브를 설치한다는 장기 계획의 첫걸음이라고 중앙도서관은 밝혔다. 이날 유홍림 총장은 "박완서 아카이브가 학생들은 물론 일반인에게 공감과 연대의 능력을 심어주는 훌륭한 문화 공간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한편 박완서 아카이브 조성은 2024년에 이루어진다.

서울대 공식 인스타그램, 10만 팔로워 달성

서울대학교 공식 인스타그램(@snu.official)이 지난 8월에 10만 팔로워를 달성했다. 서울대학교 공식 인스타그램은 학사 공지, 캠퍼스 생활정보, 주요 행사 소식을 비롯해 캠퍼스 풍경과 웹툰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서울대 공

식 유튜브 채널 또한 강의 '샤로잡다'와 학교 근황을 알려주는 '월간 SNU' 등 다양한 콘텐츠로 현재 구독자 17만명을 넘어섰다.

서울대미술관



자아(自我) 아래 기억, 자아(自我) 위 꿈

서울대학교미술관 전관에서 지난 9월 21일부터 오는 11월 26일까지 전시 '자아(自我) 아래 기억, 자아(自我) 위 꿈'이 열린다. '(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시대와 붙잡을 수 없는 것들의 회화로 명명된 서문은 "사회적인 것에 속는" 의식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것에 대해 깊이 반추해야 한다고 밝힌다. 이번 전시는 그 반추가 진행되는 의식 내부에 관한 일련의 보고서라고 심상용 관장은 설명한다. 그의 표현에 따르면 의식은 자신이나 사물을 '깨어있는 인식'으로 마주하는 정신적 행위다. 이 깨어있는 인식에 기반할 때만 예술은 사회적인 것에 대한 제대로 된 정화의 선두로 나설 수 있다. 전시에 나선 19인 작가들의 작품은 현실과 비현실 사이에서 영원과 몽환 사이를 오가며 자아로 귀환하는 듯하다. 한편 지난 10월 20일에는 전시 연계프로그램으로 강연이 열려 김영민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와 안소연 미술비평가가 각각 '예술이 시대를 만드는 방식', '몽환과 비현실 사이의 회화'를 주제로 강연했다.

서울대총동창회 소식



흠커밍데이, 관악캠퍼스 풍산마당서 개최

서울대학교총동창회(회장 김종섭)가 지난 10월 15일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버들골과 풍산마당에서 개최한 흠커밍데이는 동문들과 서울대 재학생이 한데 어울린 서울대인의 축제였다. 지난해 재학생 100여 명이 흠커밍데이에 손님으로 방문해 흥을 돋웠다면, 이번에는 재학생들이 행사 일정의 일부분을 책임지고 동문 선배들을 위해 다양한 볼거리를 꾸렸다. 메인 코너인 흠커밍데이 음악회에는 동문합창단뿐만 아니라 서울대 재학생합창단, 교수합창단과 음대 SNU 브라스밴드, 중창단이 출연해 늦은 시간 까지 열정적인 공연을 펼쳤다. 다양한 세대가 모여 마치 서울대의 역사를 펼쳐놓은 듯한 버들골에는 반가운 손님도 찾아왔다. 미주동창회 이상강(70의학) 회장과 황효숙(65가정) 차기회장, 이전구(60임학) 전회장을 비롯해 동문 63명이 함께했다. 서울대를 방문한 김에 이전구 전회장은 100만원을 총동창회에 기부했고, 서중민(64기계공학) 전 필라델피아지부 동창회장은 1만 달러를 서울대 발전재단에 쾌척했다.

흠커밍데이 캠퍼스자유탐방, 관계기관 특별개방



서울대 천체투영관 관허코스모스홀(기사와 무관)

지난 흠커밍데이 일정에는 오전 11시 정문부터 미술관, 박물관, 규장각, 지하연, 중앙도서관, 천체투영관을 거치는 코스로 캠퍼스 자유 탐방이 포함되었다. 1000여 명이 규장각을 방문했으며, 미술관에 240명, 박물관에 251명, 천체투영관에 187명, 중앙도서관에 305명이 다녀갔다. 행사가 진행된 날은 미술관, 박물관, 규장각이 쉬는 일요일이었지만 서울대학교는 캠퍼스를 찾은 동문들을 위해 해당 기관들을 특별 개방하고 해설과 투어 프로그램까지 열었다. 중앙도서관에서는 조진영 사서가 투어를 안내했고, 천체투영관에서는 물리천문학부 재학생이 천체영상을 상영하고 해설했다. 동문들은 캠퍼스 탐방을 통해 졸업 후 많이 달라진 서울대학교와 친해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캠퍼스 자유 탐방은 흠커밍데이 본 행사가 진행되는 버들골에 도착해 참가한 모든 동문들에게 선물을 배부하며 마무리되었다.

9월 조찬포럼 '교육개혁,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

지난 9월 14일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조찬포럼에서 이주호(79무역)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강연했다. 강연에서 이장관은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을 통한 교육개혁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날 총동창회 김종섭 회장과 이희범 명예회장, 김인규 학습위원장을 비롯해 유홍림 서울 총장, 오세정 전 모교 총장, 신문규 교육부 기조실장, 안양옥 전 교총회장, 이남식 인천 재능대 총장 등 교육계 전문가 동문들이 다수 참석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0세부터 6세까지 유보 통합, 6세부터 11세까지 늘봄학교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돌봄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면 저출산 문제도 반등시킬 수 있다고 설명



했다. 무엇보다 강력하게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사업은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학생 맞춤형 교실이다. 이번이 두 번째 교육부장관직인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입각하자마자 학교 폭력, 사교육 카르텔, 교권 추락 등의 문제 해결에 진력해 왔다. "힘들기는 하지만 제가 있을 때 고쳐야 할 운명이라 생각한다. 한 번 (장관을) 해봤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고칠 수 있다"는 말에 참석자들은 응원의 박수를 보냈다. 이날 총동창회에서 참석자 전원에게 이 동문의 책 'AI 교육 혁명'을 증정했다.

충남 내포, 9월 국토문화기행



지난 9월 21일 총동창회가 충남 내포 지역으로 떠나는 국토문화기행을 개최했다. 이날 여행에 30여 명의 총동창회 동문이 참여했다. '바다나 호수에서 육지 안쪽으로 들어간 포구, 갯가를 뜻하는 일반명

사 내포(內浦)를 고유 지명으로 가져간 곳이 있다. 충남 예산, 당진, 서산, 홍성, 태안까지 차령산맥 서북쪽을 아우르는 내포 지역이다. 국토문화기행은 내포의 지리적 특성을 곱씹으며 그에서 기인한 문화를 탐방하는 시간이었다. 안내와 해설을 맡은 이민부(74지리교육) 한국교원대 명예교수는 "공세리에 과거 충청도 각지에서 조세로 걷은 쌀을 보관해 한양으로 운반하던 공세리 조창이 있었다"고 말했다. 미사 중인 성당 바깥을 한 바퀴 조심스레 둘러보며 여기저기서 "아담하고, 예쁘다"는 감탄이 나왔다. 성당 축조를 돕던 마을의 젊은 신자 중 이명래가 있었다. 그는 신부에게 배운 프랑스의 본초학을 한약재에 결합해 '이명래 고약'을 만들었다. 처음 고약 가게를 연 공세리에 기념 벽이 남아 있다. "맞아, 우리 어릴 때 진짜 유명했지" 동문은 추억을 떠올리며 즐거워했다. 총동창회 국토문화기행은 연 2회 봄가을에 진행된다. 이민부 교수의 안내로 지금까지 6차 기행을 마쳤다.

11월 조찬포럼

- 일 시 : 11월 9일(목) 오전 7시 30분
- 장 소 : 플라자호텔 11층 그랜드볼룸 (시청 앞)
- 강 연 자 : 장대환 매경미디어 그룹 회장
- 주 제 : 테크노 빅뱅: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선 인류
- 참가신청: [행사명,성함,단과대학(과정명),휴대전화번호기재] 후 참가비 입금 문자 1599-7704(전화수신불가), 팩스 02-703-0755, 이메일 member@snu.or.kr
- 참가비 : 5만원(조찬 및 도서 제공)
참가비 계좌: 신한은행 140-013-055991
예금주 서울대총동창회
입금 시 행사명과 성함을 함께 기재(예_홍길동11월조찬)

11월 수요특강

- 일 시 : 11월 22일(수) 오전 7시 30분
- 장 소 : SNU장학빌딩 2층 베리타스홀(공덕역 8번 출구)
- 강 연 자 : 이수형 서울대 국제대학원 학생부원장
- 주 제 : AI시대의 일자리
- 참가신청: [행사명,성함,단과대학(과정명),휴대전화번호기재] 후 참가비 입금 문자 1599-7704(전화수신불가), 팩스 02-703-0755, 이메일 member@snu.or.kr
- 참가비 : 2만원(김밥·생수 및 도서 제공)
참가비 계좌: 신한은행 140-013-055991
예금주 서울대총동창회
입금 시 행사명과 성함을 함께 기재(예_홍길동11월수요)

회비납부 안내

회비구분		회비	
연회비	회원	5만원	
	임원	회장	100만원
		부회장	30만원
		이사	10만원
평생회비		50만원(만65세 이상 30만원)	

납부계좌 : 농협 301-0252-4434-51 권영걸(서울대미대동창회)

※ 회비납부시 성명·학번·학과를 명시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대총동창회비는 별개이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회비입금내역(10.1-25) 가나다순

- 일 반 회비 강재희(84동양)
- 후 원 금 우송실(82기약) 50만원
- 광고후원금 김덕용(81회화) 김소선(63조소) 전효순(75응미)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 20만원
이민주(76회화) 한석란(71조소) 86서양화 10만원
- 작 품 기증 유중옥(환경대학원 도시환경미래전략과정 38기)

부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황현수(74조소) 상임부회장 부친상 10월 2일	
이용준(66조소)·이용덕(77조소) 고문 모친상 10월 24일	
이윤행(68회화) 동문 부군상 10월 24일	

동창회SNS로 소식을 전하세요~

본회는 회원과의 소통을 위하여 네이버밴드·인스타그램 등 SNS계정(명칭/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동창회 소식 및 공지사항, 동문동정 등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밴드에는 전시, 행사, 애경사를 직접 알리실 수 있습니다. 가입 시 회원인증을 위해 ID를 실명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ID예:김홍도(98동양)

유튜브에서 동창회소식 보세요~

본회는 공식 유튜브 채널 '서울대학교미술대학동창회 SNU Art Alumni'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동창회 행사를 기록한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소: <https://youtube.com/@snuartalumni?si=8-bOgTTNecWwgOI2>

휴대폰으로 소식을 보세요~

서울대미대동창회 E-NEWS는 매일 말일 발행되며 동문 및 관련단체 등 3000여명에게 메일을 통해 전달하며, 인스타그램·네이버밴드 등 SNS에도 게재하므로 휴대폰으로도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문자(010-5235-1946)나 메일(snuarta@naver.com)로 동문들의 전시 및 행사·인사·수상·개업·결혼·부고 등 동정을 보내주시면 소식지에 게재해 드립니다. 또한 홈페이지와 소식지에 비즈코너를 마련해 동문들의 사업체를 소개해 선후배간 도움을 나누고자 하오니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동문은 사업체 소개기사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축하기·근조기 배송안내



회원 및 회원가족의 결혼, 상 등 경조사시 축하기나 근조기를 보내드리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축하기와 근조기는 모든 회원께 무상 제공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나 아직은 동창회 재원부족으로 당사자가 본인인 경우 외에는 요청하시는 회원께 배송비(지정업체 위탁)를 받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청전화: 02-555-1946

광고협찬안내

서울미대동창회 E-NEWS 광고를 통해 기업·단체·개인의 홍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찬해 주시는 광고료는 후원금으로 처리되며 이뉴스 발간 및 본회 사업을 위해 쓰이게 됩니다

- 회 지 명 : 서울대미대동창회 E-NEWS
- 발행방식 : 이메일 발송, SNS업로드(인스타그램, 밴드)
- 광고마감 : 매월 20일
- 발 행 일 : 매월 말일
- 판 형 : A3(국배배판) 297x420mm
- 연락처 및 이메일 : 02-555-1946, snuarta@naver.com

규격	광고료		
	1회	6회	12회
1/6면	10만원	50만원	100만원
1/3면	20만원	100만원	200만원
1/2면	30만원	150만원	300만원
전 면	50만원	250만원	500만원

후원광고

국내최초 품격 작품포장
D-Pack의 시대가 열렸다
'10kg이상 중량작품 포장 가능'
'박스는 100호까지 자유로이 맞춤제작'

작품의 운송과 보관을 위한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박스 D-Pack이 출시됐습니다. 2019 글로벌아트페어링가플(대회장 권영걸)의 국내외 전체 작품운송을 책임졌던 이한호 대청해운 대표가 삼십여년의 대형 글로벌 운송경험을 바탕으로 작품포장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새롭게 개발한 제품입니다. D-Pack은 플라스틱 소재의 포장박스로, 그동안 사용되어왔던 종이박스를 대체할 품격과 안전성, 내구성을 갖추었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가격과 맞춤제작 서비스를 제공하며 100호 이상의 대형작품도 가능합니다. 자체제작한 포장지(발포지)는 별도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문의) 02-783-7080 (문자주문) 010-8474-7080

호	BOX 가격표(cm/원)						미술품 포장지(발포지) 가격표		
	가로	F(인물)		P(풍경)		M(해경)		사이즈	가격
1	22.5	15.8	5,000	14.0	4,500	12.0	4,000	60*80	5,500
2	25.8	17.9	6,000	16.0	5,500	14.0	5,000		
3	27.3	22.0	7,000	10.0	6,500	16.0	6,000	100*80	6,600
4	33.3	24.2	8,000	21.2	7,500	19.0	7,000		
6	40.9	31.8	9,000	27.3	8,500	24.2	8,000		
8	45.5	37.9	10,000	33.4	9,000	27.3	8,500		
10	53.0	45.5	12,000	40.9	11,000	33.4	10,000	100*130	8,800
12	60.6	50.0	14,000	145.5	13,000	40.9	12,000		
15	65.1	53.0	16,000	50.0	15,000	45.5	14,000		
20	72.7	60.6	18,000	53.0	17,000	50.0	16,000	150*125	13,200
25	80.3	65.1	20,000	60.6	19,000	53.0	18,000		
30	90.9	72.7	25,000	65.1	23,000	60.6	20,000		
40	100.0	80.3	30,000	72.7	28,000	65.1	25,000	140*170	14,300
50	116.7	91.0	35,000	80.3	33,000	72.7	30,000		
60	140.0	97.0	40,000	89.4	38,000	80.3	35,000		
80	145.5	112.1	45,000	97.0	40,000	89.4	38,000	150*190	16,500
100	162.1	130.3	50,000	112.1	45,000	97.0	40,000		

동문탐방

한운성(65회화)

편집부는 한국적 리얼리즘의 대가 한운성 동문의 일상과 작업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어릴 적 추억이 있다면?

초등학교 시절 나는 '환쟁이 아들'로 놀림을 받았으나 본인은 부끄러움으로 생각지 않고 선친을 모델로 삼아 장래 희망을 "화가"라고 뚝뚝이 말했었다. 그러나 선친께서 본인의 미대 진학을 반대하셔서 고등학교에선 이과반으로 진로를 택했으나 대입원서는 회화과로 방향을 틀었다.

예술가 가족이신데 장단점은?

위와 같은 경험을 겪고 나서 두 아들이 예고를 가겠다고 했을 때 일절 사족을 달지 않았다. 아내 김희영(75동양), 첫째 한경우(98조소), 둘째 한민우(한예중, 영상원)와 조소, 디자인 전공의 며느리까지 온 가족이 미술을 하게 되었으니, 전공이 골고루 갖춰진 셈이다. 서로 전공이 달라 각자 예술세계를 펼쳐나가는데 자유로웠다.

가장 애착을 가진 작품의 주제는?



1980년대 사진 제판 기술을 이용해 1980년대 학생운동에서 희생당한 학생을 복제 이미지로 그린 "외출"이란 작품은 인물이나 사건을 특정하기보다 한국 현대사를 간접적으로 은유하기 위해 복제 기술을 써 본 것이고 1990년대 초엔 페인트브러쉬라는 ms-도스 기초프로그램으로 신문 삽화를 그렸다. 늘 새로운 매체에 관심이 많았고 이것이 최근 디지털 작업과 연관이 되니 기억에 남는 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런데 그 안에 대량생산 체제, 정치 혼란, 남북 관계, 자연에 대적하는 문명처럼 우리가 처한 '현실 상황'이 고밀도의 은유로 담겨있다. "예술은 실재가 아닌 가상을 창조하지만, 실재를 상기시킨다"는 이야기가 이만큼 마침 맞을 수 있나 싶다.

가장 기억에 남는 전시는?

제일 먼저 131점의 작품을 기증한 전북도립미술관 전시이다. 학창 시절 작품부터 최근 작품까지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작품을 원하다 보니 미 발표 작품까지 기증하였고 2022년 5월에 전북도립미술관에서 '한운성 기증작품전'을 열게 되었다. 회고전이 되어버린 기증전은 한 작가가 생전에 경험하기 힘든 전시다 보니 기억에 남을 것이다.

서울대학교미술관을 비롯해 여러 미술관에 많은 걸작을 기증했는데 보람이라면?

부친의 유작들을 관리하면서 작품 기증을 마음먹게 되었다. 부친(한흥택 1916-1994)의 유작을 30년 가까이 보관해 왔는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유화 작품은 괜찮았으나 50년 이상 지난 종이작업은 변색과 손상이 되었다. 마침 국립현대미술관이 디자인 분야의 자료도 아카이브부서에서



기증받는다라는 소식을 들었다. 전격적인 기증 절차를 거쳐 부친의 작품 400여 점과 유품, 문헌자료 300여 점의 기증을 마쳤다. 부친의 작품 기증 약정서를 전달받고 공장 내 작품을 정리하는 일에 착수했다. 기증하기에 너무 이르다고들 했지만 내 작품을 스스로 분류하고 미술관별로 기증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아트페어가 대세로 오직 예술적 가치에만 매달려 작업해 온 나로서는 창작욕이 저하되었고, 당시 대작 한 점 판 이후 실제 건강보험료의 상승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나니 통장잔고는 점점 내려가고 있었다. 그 후 작품 판매에 무관심해졌고 기증하고 난 후 비워낸 작업실을 보니 마음이 편했다. 국립현대미술관의 도움으로 여러 국공립미술관을 추천받아 총 7개의 기증처를 정했다.



요즘 디지털로 작업을 하면서 기존에 하던 유화 작업과 다른 점과 상통하는 점은?

나는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에서와 같이 동굴 속 그림자 같은 '가상의 세계'에서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보는 예술가, 기꺼이 거짓말쟁이 혹은 마술사가 되기를 자처하는 존재였다고 말할 수 있겠다. 아이패드 드로잉이라는 허상의 매체는 클라우드 서버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가상의 세계가 두드리는 진실의 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회화의 기본을 정복하고 나니 사실 디지털 작업이나 아날로그 작품이나 다 상통한다고 본다.

동창회에 바라는 점은?

동창회가 법인화한 이후의 과거 이미지를 쇄신하고 활발한 움직임으로 멀어진 동창들의 관심을 되돌리고 있다. 특히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구태의연한 허물을 벗고 있다. 한 예로 숨어서 조용히 작업하고 있는 동창들을 아우르는 기금모금 전시를 지속해서 개최하고 있는 것은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본다. 앞으로 활발히 작업하고 있는 더 많은 동창을 동창회 안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 끊임 없이 연락하고 방문하고 기사화하는 인내심이 답일 것이다.

한동문은 모교 회화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국무부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필라델피아 타일러미술대학 대학원을 졸업했다. 모교 서양화과 교수를 지내고 현재 명예교수인 그는 동아미술제와 서울국제판화비엔날레 대상을 비롯해 다수의 수상경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한국현대판화협회 회장, 공간국제판화비엔날레 운영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인터뷰/ 이민주 주간)

트라이스트 아트 페어 초청 한귀희(68회화)

한귀희 동문이 운영하는 S-갤러리가 LA 토렌스 아트 뮤지엄에서 주최하는 아트 페어 '트라이스트(TRYST)'에 초청되었다. 남가주 지역 대표 문화기관인 토렌스 아트 뮤지엄은 창작과 작품에 대한 열정을 가진 미국 및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갤러리와 작가들을 자신이 개최하는 아트페어에 초청하고 있다. 이번 아트페어에는 64개 갤러리가 초청되었다. 그중 하나인 S-갤러리에서는 이번 아트 페어에 한석란(71조소), 백혜란(70회화) 동문이 작품을 출품한다.



S-갤러리는 할리우드 지역에 운영되고 있는 시설로 전시홀 5개, 총 557㎡ 규모에 달하는 문화시설이다. 이번 아트페어 초청을 계기로 S-갤러리는 주류 문화계 진출에 활발히 나서고 있다. 한편 한동문은 서울대 남가주 총동창회장을 역임했으며, S-갤러리에서 여러 차례 모교 동문전을 개최하는 등 한국과 미주에서 활동하는 모교 출신 작가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힘써왔다.

청주공예비엔날레 참가 나성숙(71응미)

나성숙 동문이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청주문화제조창에서 열리는 2023청주공예비엔날레에 17명의 제자와 함께 참가했다. 나동문은 <우리 서로 다리가 되어>라는 제목의 작품을 출품하여 2023청주공예비엔날레 소장품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본 작품은 거친 표면의 삼베 위에 나전과 난각, 금, 흑칠의 빛, 정교한 붓 터치를 엮어 만들어진 8m가 넘는 길이의 대형 작품이다. 17명의 제자가 1/17 분량을 공평하게 나눠 맡아 조화로운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냄으로써 화합의 정신을 보여줬다. 나동문은 20여 년간 북촌에



서 옷칠 공방인 서로재를 운영하며 옷칠과 황칠을 연구해 왔다. 나동문의 필명 '아침이슬'을 뜻하는 서로재는 옷칠로 소통하는 북촌의 사랑방 같은 공간이다. 한편 나동문은 모교에서 응용미술 학사와 조경학 석사를 졸업하고, 하버드대학교 디자인대학원(GSD)에서 연수했다. 쌍용건설, 현대자동차, 태양금속, 차병원, 세종호텔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으며, KWWD회장, 국제아트엔디자인협회장, 한국미협부이사장을 역임했다. 현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명예교수이며 북촌아트센터이사장이다.

서양미술사학회 제17대 회장 취임 이지은(86서양)

이지은(명지대 인문대학 미술사학과 교수) 동문이 서양미술사학회 제17대 학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2023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2년이다. 이동문 모교 서양화과를 졸업했으며, 동대학원에서 미술이론 석사 과정을 마쳤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보스턴 대학교 미술사학과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박사학위 취득 후에는 베를린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있었으며, 보스턴 대학교 미술사학과에서 강의했다. 이후 한국에 돌아와 현재 명



지대학교 미술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더불어 그는 몽블랑 문화예술후원자상 심사위원,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 운영위원, 한국연구재단 문화융복합단 전문위원, 한국미술이론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한편, 서양미술사학회는 1989년 창립 이후 고중세 및 근세 서양미술사와 현대미술사에 관한 학술적 담론의 장으로서, 관련 미술이론 연구자 400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하는 우리나라 미술사학 분야를 대표하는 학술단체이다.

고양이 종이접기 & 컬러링북 우리도 고양이 키워요!

김연수(87조소)

김연수 동문이 책 '고양이 종이접기 & 컬러링 북 우리도 고양이 키워요!'를 지난 8월 30일 출간하였다. 이 책은 고양이의 독특한 특성을 반영한 종이접기 과정을 안내하며, 다양한 고양이 종에 맞는 디자인 도안을 제공한다. 종이접기 동영상을 제공하여 종이접기 과정을 더욱 재미있게 익힐 수 있으며, 고양이 모양의 도안을 활용하여 종이를 접어보며 창의적인 컬러링을 즐길 수 있는 코너도 마련되어 있다. 이 외에도, 고양이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놀이 도구 제작 방법을 소개하며, 독자들이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도록 다양한 놀이 도안을 제공한다. 김동문은 이 책을 활용하여 훈련과 놀이를 결합한 즐거운 시간을 고양이와 함께 만끽하기를 제안한다. 한편, 모교 조소과를 졸업한 뒤, 일산 백석초등학교 미술부 강사로 활동, 프랑스 Noemie Notin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서울미술학원에서 아동미술을 지도하고 있다. 치과협회 조형 기념물 제작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장난감 만들기', '창의력미술놀이' 등의 책을 썼다.

네이버웹툰 최강자전 우수상 명소연(16디자인)

명소연 동문의 스포츠 클라이밍 단편 웹툰 <데드포인트>가 지난 9월 15일 네이버웹툰 최강자전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네이버 웹툰 최강자전은 네이버웹툰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신인 작가를 발굴하기 위해 주최한 공모전으로, 4번의 라운드를 거쳐 선정된 8 작품에, 네이버웹툰에 선정된 작품을 정식으로 연재할 기회를 부여한다. 명동문의 <데드포인트>는 힘을 쓰지 않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때 사용하는 스포츠 클라이밍 기술 '데드포인트'에서 영감을 받은 스포츠 장르의 웹툰으로, 남들과 달리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없는 한계



를 가진 고등학생 박호지가 자신의 우상이었던 스포츠 클라이머 채아성을 만나 한계를 극복해 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오는 11월 1일 공모전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명동문은 모교 디자인학부를 산업디자인 전공으로 졸업했으며, 2023년 본회가 주최한 'Design & Craft' 전에 스포츠 클라이밍 중 볼더링을 배웠던 경험을 소재로 한 단편 일상 만화 <오르락내리락> 책자와 일러스트를 전시하기도 하였다.

그래픽노블 '원래월드' 클라우드 펀딩 김영현(16동양)

김영현 동문의 그래픽노블 '원래월드'가 지난 10월 18일부터 오는 11월 7일까지 클라우드 펀딩을 받고 있다. 원래월드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수도 없이 반복하는 말인 '아니', '근데', '진짜' 그리고 '원래같은 말버릇'에 대한 김동문의 고찰로부터 출발한다. 매일 같은 일상을 살고 있는 한국인 '김 씨'가 퇴근 길에 마주한 낯선 간판에 이끌려 들어가게 된 원래월드, 모든 사람의 원래 그대로를 존중하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캐주얼한 체본의 가벼운 형식에 가볍지만은 않은 내용을 담은 이 그림책은 김동문의 첫번째 책이다. 텀블벅에서 진



행되는 이번 클라우드 펀딩에 참여하면 후원 금액에 따라 김동문의 작업을 담은 엽서, 책갈피 그리고 원래월드 책으로 구성된 선물을 받아볼 수 있다. 펀딩 목표 금액 달성 시, 예정 전달일은 오는 11월 18일이다. 한편 김동문은 2인전 '불안한 선'(서울 양평동 ABMS), 개인전 '날지 않는 사람들'(서울 성북동 유명공간) 등의 전시를 개최했다. (텀블벅 링크 <https://www.tumblbug.com/younnghyuun1>)

물방울 연대 김창열(48회화)

김창열 동문의 '물방울 연대: The Water Drops from Paris to Korea'가 지난 9월 6일부터 10월 28일까지 광화문아트조선프스페이스에서 개최되었다. 김동문은 1950년 앵포르멜 운동을 이끌며 현대미술가협회 창회원으로서 서양미술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1969년 뉴욕을 떠나 파리에 정착하고 파리 근교의 작업실에서 재활용을 위해 씻어놓은 캔버스에 맺힌 물방울이 아침 햇살에 빛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김동문이 물방울 작업



을 시작한 계기가 된다. 김동문은 생명의 근원인 물방울과 조부와의 기억을 환기하는 천자문, 돌아갈 수 없는 어린시절 고향의 기억 속의 모래 등을 캔버스에 가져와 자기 근원으로의 회귀를 통해 자기만의 예술세계를 인정받게 된 것이다. 총 회화 19점으로 구성된 이번 전시는 연대별로 김창열의 예술세계 전반을 총망라하여 물방울 탄생 이후의 그 전개 과정을 유기적인 관점에서 재조명하였다.

한용진 조각전 한용진(56조소 | 1934-2019)

한용진 동문의 조각전이 성북구 해곡최순우기념관(최순우 옛집)에서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28일까지 열렸다. 이 전시는 국립중앙박물관장을 지낸 미술사학자 해곡 최순우(1916-1984)의 옛집에서 열린 '해곡의 영감'의 세 번째 전시로, 한동문의 석조 작품 14점과 드로잉·판화 11점, 기록 자료를 선보였다. 한동문은 한국 추상 조각 1세대 작가로, 자연석에 최소한의 인위적인 손질을 하는 석조 조각 작업을 펼쳐왔다. 자신의 작업에 관해 "잃어버린 자아 그리고 아직 찾지 못한 자아를 찾는 나는 돌에서 마음의 화평을 얻으려 한다"라고 설



명한 바 있다. 한동문은 최순우가 기획한 국립박물관 '판화5인전'(1963년)에 김종학, 윤명로, 김봉태 등 동료 작가들과 함께 참여했다. 1963년에는 김환기와 함께 상파울루비엔날레에 참여했다. 지난 10월 22일에는 미술사학자 조은정이 진행한 전시 연계 강연 '조각가 한용진의 삶과 작품 세계'도 열렸다. 한편 한동문은 모교를 졸업하고 1960년대부터 미국 뉴욕에서 활동해 왔다. 2019년에 향년 85세로 작고했다.

本 그리고 美 연우然愚 최충웅(57조소 | 1939-2019)

최충웅 동문의 회고전 '本 그리고 美 연우然愚'가 지난 9월 19일부터 10월 18일까지 노원문화예술회관 노원아트갤러리에서 열렸다. 최동문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후학 양성에 힘쓰며 노원에서 활발하게 활동했기 때문에 노원문화재단의 기획전에 선정되었다. 이번 전시에서는 최동문의 조각 작품 30여 점이 관람객을 만났다. 최동문은 한국 현대조각의 거장이자 스티로폼 원형 조각의 창시자로, 모교 출신 조각가들이 결성한 '낙우회'와 한국 조각의 발전을 이끌어 온 '현대공간회'를 통해 활발한 작품 활동을 펼쳤다. 국내외 5여 회의



개인전을 비롯하여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출품 14회, 각종 단체전 참여 등 창작 활동으로 한국 현대조각 예술의 발전에 기여했다. 조각가로서 최동문이 주목한 것은 한국 고유의 미이다. 그는 한국적 감수성을 담은 '장승'과 '탑'을 소재로 대표적인 연작 '전설', '작품' 등을 만들었다. 이번 회고전은 최동문의 대표적인 브론즈 작품뿐만 아니라 목재 작품과 드로잉 등으로 구성되었고, 작품을 최동문의 생전 모습을 담은 사진과 함께 전시하여 삶과 작품을 한눈에 살필 수 있도록 했다.

내 인생의 지금 63회화·조소과 동문 10인

63학번 회화·조소과 동문전 '내 인생의 지금'이 갤러리마주에서 오는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열린다. 김소선·김철효·김효숙·박윤희·배수자·변희준·안재기·정심미·조용숙·최홍순 동문 등 10인이 참여했다. 이번 전시에는 밤하늘을 배경으로 창조의 기둥이 솟아 있는 모습을 표현한 김소선(▶사진), 푸르스름한 새벽을 표현한 김철효, 기독교 신앙의 사랑과 십자가 연작 테라코타 부조의 김효숙, 아르마디오와 사랑과 증오를 표현한 박윤희, 만추를 즐기는 사



람들을 서정적으로 표현한 배수자, 격동적인 춤을 추는 인물을 폼보드로 구현한 변희준, 타오르는 사랑의 불꽃을 표현한 안재기, 강렬한 쪽빛 유리 오브제의 정심미, 다채로운 색 조화로 몸짓을 표현한 조용숙, 생률 제목의 최홍순 동문 등의 작품들이 선보인다. 참여한 동문들은 "지난 일년을 알차게 보낸 동기들의 작품을 마주할 생각에 설레인다"고 밝혔다.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제20회 63 회조과 동문전

내, 인생의 지금

The 20th Exhibition 2023

Gallery imazoo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0길 12, ANN TOWER B1 | 02 557 1950 | www.imazoo.com

김소선 김철효 김효숙 박윤희 배수자
변희준 안재기 정심미 조용숙 최홍순

2023.11.1 Wed - 11.15 Wed.

후원광고

낮설은 얼굴들처럼 최옥경(59회화 | 1940-1985)

최옥경 동문의 전시 '낮설은 얼굴들처럼'이 지난 8월 25일부터 10월 22일까지 국제갤러리 부산점에서 열렸다. 최동문은 한국을 대표하는 여성 추상 작가로, 역동적인 형태와 대담한 붓질, 화려한 색채가 돋보이는 작업으로 알려져 있다. 이제까지 열린 최동문의 전시가 그의 대표적인 작업세계를 알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전시는 최동문의 사적이고 감성적인 면모에 집중한다. 전시에 나온 작품은 미국 유학을 시작으로 최동문이 본격적으로 독자적인 추상 문법



을 구축해 나가던 1960년대의 작업 중 흑백 드로잉과 인체 크로키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최동문은 모교 회화과를 졸업한 후 1963년에 미국 유학을 떠나 미시간 크랜브룩 미술 아카데미 등에서 수학했다. '한국현대작가전(1972, 도쿄) 등에 참여했고 1987년에 국립현대미술관 등에서 회고전이 열렸다.

바람이 분다. 조각에 대하여 이강소(61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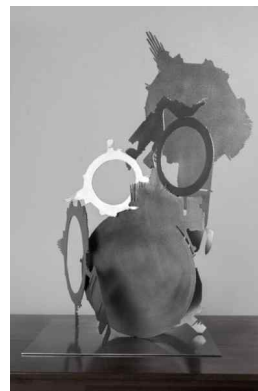
이강소 동문의 첫 조각 작품전 '바람이 분다. 조각에 대하여'가 지난 9월 5일부터 10월 28일까지 창성동 리안갤러리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1973년에 열린 이동문의 첫 개인전 '소멸'로부터 50주년을 맞이해, 처음으로 그의 조각을 선보이는 자리였기 때문에 눈길을 끌었다. 40여 년간 실험해 온 조각 중 20여 점이 작업실을 나서서 신작 회화와 함께 관객을 만났다. 이동문의 조각은 "아무렇게나 허공에 던지거나 툭툭 쌓아 만들어지는 우연적 요소의 흠뎅어리"를 기반으로 한다. 흠뎅어리를 던지는 방향, 속도, 힘, 중력에 따라 달라지



는 형상, 그리고 건조 과정에서의 수축, 갈라짐에 따른 우연적 변형을 그대로 보여주면서도 단단한 조각으로 만들기 위해 방법을 강구했다고 한다. 한편 이동문은 1969년 신체제를 결성하고 1974년 '대구현대미술제'를 발족시키는 등 한국의 미술운동을 주도했으며 1975년 제9회 파리비엔날레에서 '닭의 퍼포먼스'로 알려진 '무제-75031'로 주목을 받았다. 팔라초카보다(2019), 생테티엔근현대미술관(2016) 등에서 주요 개인전을 개최한 바 있다.

INFINITE SPACE 정보원(65조소)

정보원 동문의 개인전 'INFINITE SPACE'가 지난 9월 4일부터 10월 7일까지 종로구 표갤러리에서 열렸다. 정동문은 "단순한 예술작품을 넘어서 공간을 창조하고,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상호 작용하는 창작"을 지향한다. 그의 작품은 순수 추상적 구조물로, 역삼역 LG아트센터 광장, 여의도 산업은행 조각정원 등 서울 곳곳에 설치되어 도시 안에서의 경험을 풍요롭게 한다. 이번 전시에는 정동문이 BTS의 선율을 담아 제작한 높이 3m의 대형 조각 '소리의 움직임



시리즈 S1'을 선보였다. 음파를 활용해 BTS의 음악을 시각화하는 실험적 작업의 일환으로 2023 KIAF(키아프)의 표갤러리 부스에도 전시된 작품이다. 한편 정동문은 모교 조소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수료한 후 파리 국립 장식미술학교 조각과를 졸업했다. 1988년 서울 88올림픽 성화 도착 기념 조형물 지명 공모에 당선된 바 있으며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등에 작품이 설치 및 소장되어 있다.

그리움, 곁에 스미다 김덕용(81회화)

김덕용 동문의 개인전 '그리움, 곁에 스미다'가 지난 10월 18일부터 오는 11월 21일까지 강남구 대치동 포스코미술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나무와 자개, 재를 활용한 독특한 기법을 사용하여 심상의 근원을 '빛'과 '결'로 조형화해 온 김동문의 작업세계를 담고 있는 작품 50여 점으로 구성되었다. '생명'과 '순환'을 주제로 인간, 자연, 나아가 우주로 확장되는 무한한 생명의 순환을 경험할 수 있는 작품들과 더불어 2023년 제작된 신작까지 공개되어 작가의 작업세계를 총망라한다. 작가는 나무판을 작업의 캔버스로 삼아 작품을 만드



는데, 세상에 존재하는 단 하나의 화면 위에 단청 채색을 하고, 자개, 금박 등을 옷으로 이겨 붙이는 고도의 기술로 '결'을 만들어 나간다. 작품에 담아내고자 감성을 표현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재료와 기법을 찾기까지 그가 걸어온 길에서 축적된 시간성, 공간감, 질감은 '빛'과 만나 독특한 한국성을 만들어 낸다. 한편, 김동문은 모교 회화과 학사과정과 동양화과 석사과정을 졸업하였으며, 다수의 개인전과 단체전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김덕용(81회화)
그리움, 곁에 스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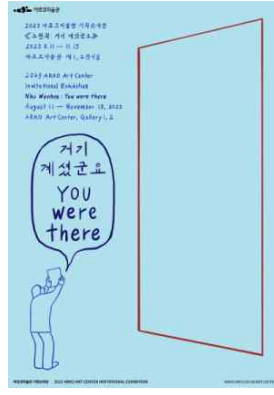
2023년 10월 18일(수) - 11월 21일(화)

월~금 10:00-18:00(17:00 입장마감)
토~일 11:00-16:00(15:30 입장마감)

포스코미술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40 포스코센터 B1
T. 02-3457-1665

노원희: 거기 계셨군요 노원희(66회화)

노원희 동문의 기획초대전 '노원희: 거기 계셨군요'가 지난 8월 11일부터 오는 11월 19일까지 아르코미술관에서 열린다. 노동문은 1977년 개인전을 계기로 본격적인 미술활동을 시작해 1980년 소집단 미술운동 '현실과 발언'의 창립 구성원으로 참여했다. '현실과 발언' 창립전은 1980년 문화예술진흥원 미술회관(현 아르코미술관)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정치적 메시지가 강하게 드러난다고 여긴 당시 사회 분위기로 인해 무산되었다. 개관 50주년을 앞둔 아르코미술관에 노동문이 초청된 것은 이러한 역사를 오늘의 관점에서 되짚어 보



고, 작업을 통해 개인과 사회를 바라본 작가의 관점을 살피기 위해서라고 아르코미술관은 말한다. 이번 전시는 1980년대 회화부터 신작 회화, 대형 천 그림, 참여형 공동작업, 신문 연재 소설 삽화, 아카이브 등 작가의 작품세계를 조망할 수 있는 130여 점의 작품과 자료를 선보인다. 한편 노동문은 모교 회화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82년부터 2013년까지 부산 동의대학 교수로 재직했다. 17여 회의 개인전을 열었으며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바이블도사전 서동희(66응미)

서동희 동문의 '바이블도사전'이 자양동 바이블도자예술관(더샵 스타시티, c-3304)에서 지난 10월 12일부터 오는 12월 22일까지, 오는 1월 12일부터 5월 22일까지 두 기간에 걸쳐 열린다. 전시의 주제는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이기는 자, 극복하는 자에게 주는 선물이다. 각각 계시록 2장 7절, 2장 10절, 3장 21절에 등장하는 생명의 나무와 생명의 면류관 그리고 보좌를 모티브로 한 세 작품이 전시에 포함되었다. 이번 전시에 나온 '보좌'는 서동문이



만든 7번째 보좌이다. 첫 번째 보좌는 1997년 웨스트버지니아 웨슬리안 대학에서 제작되어 '보좌에 대한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대학 내 갤러리에서 전시되었다. 7개의 보좌는 각각 슬라이싱이나 펀칭 기법으로 제작되었으며 모두 계시록, 히브리서 특정 구절에 등장하는 구체적인 보좌를 형상화했다. 이 중 여섯 번째 보좌인 은혜의 보좌(히브리서4)는 2023년 본회의 빌라다르(예술의 전당)에 전시되기도 했다.

미완의 항해 73학번 동문 37명

모교 73학번 입학 50주년 전시회 '73+50+ 미완의 항해'가 오는 11월 8일부터 18일까지 압구정동 갤러리 Pal에서 열린다. 입학동기생 37명이 학과 구분 없이 참가하는 이 전시회에는 회화, 조각, 디자인, 공예, 사진, 건축, 미술비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 온 출품 작가들의 대표작품 50여 점이 전시된다. 이 전시회는 졸업 후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삶과 예술을 향해 치열하게 달려온 40여 년의 시간을 뒤로 하고, 이제 한발 물러서서 자신과 옛 친구들을



돌아보며 젊은 날의 소중한 인연을 되새기는 한편, 과거에 대한 감상적 회고에 그치지 않고 '미완의 항해'를 위해 새롭게 출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전시기간 동안 '쇼애틀' 형식으로 출품 작가들의 강연, 토크, 관객참여 워크숍 등 총 10회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개막행사는 오는 11월 8일 오후 3시부터 열리며, 정진국 동문(73회화)의 축시 낭송에 이어 이정선 동문(68조소)의 축하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광화문 국제 아트페스티벌 한근석(81응미)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 조직위 주최 문화예술행사의 일환으로 사단법인 한국기초조형학회가 GIAF 주최 및 주관하는 'GIAF 초청 2023 KSBDA 세종특별 전'이 "융합과 생성"을 주제로 오는 11월 8일(수)부터 14일(화)까지 세종문화회관미술관 전관에서 개최된다. 한국·일본·중국·대만·태국·영국·이집트·미국·호주 등 10개국 400여 작가의 참여로 개최된다. 아울러 광화문 광장 일원에서 실시된 2023서울사랑 어린이그리기대회와 '우리 동네가 최고'의 공모전 선정 어린이 그림전이 E-book으로 제작되어 홈페이지를 통하여 오는 1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시된다. 2023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은 오는 11월 2일 오후 5시 조직위원장인 최재형 국회의원의 축사로 개막된다. 광화문아트포럼 대표이자 행사의 총괄 프로듀서인 한근석(응미81)동문은 공예가이자 아트디렉터로 서울시디자인위원을 지냈으며,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BK 21교수를 역임하였다.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의 모든 전시와 연계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되며 참여 방법이나 자세한 내용 등은 홈페이지(www.giaf.or.kr)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후원광고

Welcome to GwangHwaMun

세종미술관/광화문광장
공식 온라인 플랫폼 www.giaf.or.kr
11.02 - 11.21

-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
- 아시아 현대미술 청년작가공모전
- 올해의 작가 신용준-입체/유희승-평면
- 한국기초조형학회국제초대전
- 시민 대상 세종 미술축제 공모전
- 광화문사랑 서울사랑 어린이 그리기 대회

주최, 주관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 조직위원회
후원, 협찬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교육청 종로구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한국미술협회 서울미술협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메세나협회 한국기초조형학회

진화하려는 날개짓 전민숙(74조소)

전민숙 동문의 아홉 번째 개인전 '진화하려는 날개짓'이 지난 10월 10일부터 31일까지 대소원면 성마루미술관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전통문이 미술을 접하게 된 동기부터 학창시절, 작품활동 이력까지 모두 소개하는 회고록과 같은 전시이다. 전통문은 1978 유기체적 추상 작품 '어울림'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다양한 갈래로 작품 세계를 확장해 왔다. 70-80년대에는 물활론적 조각관의 영향을 받아 차가운 재료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려 하는 작업을 했다. 10년간의 공백기 이후에 90년대 말 고향 충주로 돌아가서 스테인레스, 도자,



테라코타, 브론즈로 작업의 재료를 확장했다. 주제도 '생명'이나 '행운' 같은 추상적 주제를 벗어나 '우렁각시(2004)처럼 전통 설화 모티브를 다룬 작품이 등장했다. 2000년대는 전통문이 공공미술에 발을 들이게 된 시기이기도 하다. 한편 전통문은 '일상으로 더 가까이(중원문화재단 초대전, 충주백신센터) 등에서 개인전을 했다. 공공미술 작품으로는 '충주 4.19 학생혁명 기념탑(2016) 등이 있다.

내 이름은 빨강 서용선(75회화)

서용선 동문의 개인전 '서용선: 내 이름은 빨강'이 지난 7월 15일부터 10월 22일까지 소격동 아트선재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에는 서동문의 1980-90년대 작품부터 신작까지 아우르는 7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되었다. 서동문은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사람-도시-역사'라는 3개 항을 토대로 한국의 근대성에 대한 탐구를 시도하며 이를 '물질-환경(자연)-신화'라는 3개 항으로 확장하여 세계사적 보편성의 관점에서 동시대적 삶의 조건과 의미에 대해서 성찰해 왔다. 이번 전시는 서동문의 회화 세계를 재검토하면서 그의 예



술 세계 한국 근현대 미술사적 위상을 고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서동문이 인간의 본질과 삶의 의미를 회화적으로 모색하고 신화적 세계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형성하고자 한 '회화적 공간(pictorial space)' 조망하고자 했다고 아트선재센터는 밝혔다. 한편 서동문은 모교 회화과 졸업 후 동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작가상(2009), 제26회 이중섭미술상(2014) 등을 받은 바 있다.

The Fairy 꽃의 요정 김양희(77조소)

김양희 동문의 28번째 개인전 'The Fairy 꽃의 요정'이 지난 10월 26일부터 31일까지 송파구 서울아산병원갤러리에서 열렸다. 20여 점 규모로 열린 이번 전시에는 꽃과 정원, 요정을 그린 사실주의적 구작들과 함께 한층 추상화된 신작이 전시되었다. 김동문은 어린 시절 꽃과 정원의 기억으로부터 작품의 이야기를 끌어낸다. 그에게 정원은 치유와 위로의 공간이자 내일을 위한 응원의 공간이다. 그는 은밀한 정원을 천천히 걸으며 얻는 위로와 응원을 작품으로



전한다. '꽃의 요정'은 우리의 고단한 삶을 보듬고 지켜 줄 그 어떠한 존재에 대한 그리움의 표현이다. '지친 나를 토닥여 주고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하는 메신저가 바로 '꽃의 요정'이라고 김동문은 설명한다. 한편 김동문은 모교를 졸업한 후 28여 회의 개인전, 200여 회의 단체전을 꾸준히 개최해 왔다. 삼성화재, 삼성전자, 포스코, 국제성모병원, 이탈리아대사관, 두바이 국립현대미술관 등 국내외 기업단체들과 협업하고 있다.

소소한 일상 전효순(75응미)

전효순 동문의 개인전이 오는 11월 15일부터 20일까지 갤러리미 3층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제목 '소소한 일상'에 걸맞게 작가의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사소함을 마주한다. 일상의 사물들은 그 나름의 쓰임새나 그의 취향에 의해 선택된 것이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용도와 무관하게 그에게 시각적인 자극을 불러일으킨다. 정지된 사물이지만 그 안에 다양한 추억과 그의 정서와 삶의 이야기들이 깃들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길을 걸으며 만나는 이름 모를 풀



과 꽃들, 매 순간 새로운 모습으로 피고 자라는 들꽃들의 경이로움이나 역센 기운을 드러내는 커다란 잎들은 그의 시선을 붙들곤 한다. 전통문은 '삶의 가까운 자리에서 침묵 중에 나누던 소소한 대화들을 그림 속에 펼쳐보았다.'고 작가노트에서 밝혔다. 한편, 전통문은 1994년 첫 개인전 이후 8회의 개인전과 80여 회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전효순 75응미

소소한 일상

후원광고

2023. 11.15 - 11.20

갤러리 미 3층
(서울 종로구 인사동5길 3)
T. 02-733-8877

도가도 비상도(圖可圖 非常圖) 허구영(78회화) 외 1명

허구영 동문과 김영호 작가의 전시 '도가도 비상도(圖可圖 非常圖)'가 지난 9월 7일부터 10월 7일까지 대전 중구 스페이스테미에서 열렸다. 전시 제목은 노자의 도덕경 첫머리인 '도가도 비상도(道可道 非常道)'를 따와 길 도(道)를 그림 도(圖)로 변형한 것이다. '그림을 그림이라고 하면 그것은 더 이상 그림이 아니다'라고 풀이할 수 있고, '더 이상 회화로만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번 전시에는 허동문의 '세 개의 물음(Three



questions)', 김영호 작가의 '마그리트에게 경의를 표하다(Homage to Magritte)'를 비롯해 우리를 개념화할 수 없는 오묘한 세계로 초대하는 33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한편 허동문은 모교 서양화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한 후 현재 목원대 미술학부 서양화 전공 교수로 재직하며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낭만정원'(2017, 삼청동 누크갤러리) 등의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여러 단체전에 참여했다.

무위자연 이흥전(82회화)

이흥전 동문의 개인전 '무위자연(無爲自然)'이 지난 1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경기도 양평군 카포레에서 열리고 있다. 삶의 굴곡을 겪던 시기, 작가는 '무위자연' 사상을 주창하는 노자의 도덕경에서 감동과 위로를 받았고 2015년부터 '무위자연'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동문은 수행하듯 그림을 그린다. 우선 마음을 비우기 위해 명상을 한 뒤 캔버스를 바닥에 누어 놓고 대나무 죽순으로 만든 붓에 장대를 연결해 사면을 돌아다니며 그린다.



이동문은 '노자 사상의 핵심인 '상선약수(上善若水), 즉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는 가르침을 늘 가슴에 담고 있다고 말한다. 한편 이동문은 모교 회화과를 졸업하고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에서 미술치료로 석사 학위를 수료했다. 레인보우아트테라피원장, 선과 색 회원, 경기대 대학원 미술치료학과 겸임교수를 역임, 현재는 앤터갤러리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투명한 공간, 사이 거닐기 고명근(83조소)

고명근 동문의 개인전 '투명한 공간, 사이 거닐기'가 지난 8월 20일부터 오는 11월 12일까지 은평구 사비나미술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는 1980년대 '빌딩' 초기작을 포함하여 총 201점이 공개되었다. 고동문은 '투명한 사진 조각'의 창시자이다. 고동문의 작품은 '실체는 없다'라는 핵심 개념을 담고 있다. 그는 "이미지로 채워진 조각이 텅 비어 있는 투명한 용기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본질이 "결국 '영원히 실체로 남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명제와 맞닿아 있다"고 말한다. '투명한 사진 조각'은 미술 장르 간 경계를 허



물던 시기이자 사회적 혼란기였던 1980년대에 탄생했다. 이번 전시에는 초기작인 '건물부터 '자연', '몸' 연작에 이은 최근 삼부작(Trilogy)까지 한자리에 소개된다. 한편 고동문은 모교 조소과를 졸업한 후 뉴욕 프랫인스티튜트에서 순수미술 석사과정을 마쳤다. 1996년 모란미술상을 받았고, 국민대 예술대학 교수를 역임했다.

속옷을 뒤집어 입은 양복과 치마를 모자로 쓴 드레스 김홍석(83조소)

김홍석 동문의 개인전 '속옷을 뒤집어 입은 양복과 치마를 모자로 쓴 드레스'가 지난 8월 23일부터 오는 11월 10일까지 반포동 스페이스이수에서 열린다. 김동문의 신작과 미발표작 등으로 구성된 이번 전시는 제도권 '안'에 존재하는 위계와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밖'에서 탐색하고 재배치해 온 기존 작업과 연장선에 있다. 동시에 작업을 뒤엎김'이란 개념으로 확장해 우리 시대의 복잡한 다면성을 반영하고 감각의 미술, 사유의 미술, 근대성, 현대성, 미의식 등



모든 것이 뒤엎긴 오늘날 미술의 한 단면을 이야기한다. 전시 제목은 신작 페인팅 '사군자—231234'(2023)를 두고 작가가 "마치 속옷을 뒤집어 입은 양복이거나 치마를 모자로 쓴 드레스와 같은 형국"이라고 묘사한 것에서 따왔다. 김동문은 복잡하게 뒤엎긴 작업을 통해 세상을 나누는 경계를 무너뜨리고 '새로 보기'를 추구한다. 한편 그는 모교 조소과를 졸업한 후 1990년 뒤셀도르프 쿤스트 아카데미에서 수학했다. 현재 상명대 무대미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Sukran Han(71 조소)



Sukran Han
Memories at Spring time
72.6X72.6cm

후원광고

**인천 아시아 아트쇼
Incheon Asia
ART Show
2023
IAAS**

2023.11.23.Thu-11.26.Sun
Songdo Convensia 2-4hall
MK Gallery Booth D12/D13
www.mkgalleryusa.com



Minjoo Lee(76회화)



MinjooLee
Resonance between Nature and Me
90X116.8cm

동면 한옥 양혜규(90조소)

양혜규 동문의 전시 '동면 한옥'이 지난 8월 30일부터 10월 8일까지 소격동 국제갤러리 한옥 공간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본격적인 전시장으로서의 출발을 맞이하기 전 유보적 휴면 상태에 있는 본 공간의 상태를 적극 반영했다. '동면 한옥'은 2006년 인천 사동의 한 폐가에서 선보인 양동문의 국내 첫 개인전 '사동 30번지'를 연상시킨다. '사동 30번지'는 '유령 같은' 삶을 상징하는 장치들인 깨진 거울, 조명기기, 건조대, 링거 대 등을 성글게 구성하여 폐가 안에 낯선 환경을 조성했던 전시였다. 이에 비해 '동면 한옥'은 상대적으로 정



립된 환경 속, 보다 어엿한 작품의 형태를 갖춘 작업을 선보인다. 광원 조각 '토템 로봇'(2015), 인조 짚을 직조한 작품 '중간 유형' 중 '중간 유형-서리 맞은 다산의 오발 이무기'(2020) 등 다양한 종류와 상이한 제작 시기의 작품을 관람할 수 있었다. 한편 양동문은 서울과 베를린을 오가며 왕성한 전시와 실험적이고 독창적인 활동을 보여왔다. 현재 독일 슈테델슐레 순수미술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앉음과 일어섬의 상상에 대하여 연기백(93조소)

연기백 동문의 전시 '앉음과 일어섬의 상상에 대하여'가 지난 9월 8일부터 오는 11월 5일까지 김종영미술관에서 열린다. 본 전시는 김종영미술관에서 김종영 선생의 뜻을 기려 2004년부터 매년 촉망되는 작가를 선정해 온 기획전 '오늘의 작가전'으로서 개최되었다. 연동문은 2007년 '遲遲 더딤과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개인전을 개최한 이래로 작가주의에 반하는 작업을 지향해 왔다. 이번 전시에서 연동문은 버려지고 주변화되었던 근현대를 지나 온 실제 사물들을 소재로 삼아 조각, 설치, 사운드, 아카이빙 형식으로 표현했



2023.9.8.~11.5.

다. 그는 대상에 다가서고 마주하고 대면하는 과정에서 취하는 수용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각각 '앉음'과 '일어섬'이라고 표현한다. 앉음과 일어섬의 태도로 대상을 살피며 전체 프로젝트의 '상'을 더듬고자 한다. 한편 연동문은 'Green-heights'(2012, 경기 소마드로잉센터), '농축된 史'(2013, 서울 자하미술관), '곳 다가서기'(2014 서울 금천예술공장) 등에서 개인전과 단체전을 열었으며 금천예술공장, 고양레지던시의 입주 작가로 활동한 바 있다.

시의 기억 박제성(98디자인)

박제성 동문의 개인전이 지난 10월 7일부터 오는 11월 25일까지 청담동 갤러리 508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동시대미술에서 미지의 영역을 개척해 나가는 박동문의 신작을 선보이는 전시로 근래 화두로 떠오른 인공지능과 예술창작의 접목을 통해 창작의 주체성과 미래예술의 방향성에 대한 물음을 던지는 작업이다. 이 전시는 기억색과 조각시라는 작가의 내면적 사고인 시적 언어를 인공지능이 어떻게 해석하고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가에 대한 공동작업



2023.10.7.~11.25.

의 결과이며, 인공지능이란 첨단 기술이 예술창작의 영역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또 활용될 수 있는가에 관한 실험적 작업이다. 한편, 박동문은 모교 디자인과를 졸업하고 영국 런던의 로열 칼리지 오브 아트(RCA)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2021년 DDP 서울 라이트 메인 작가로 '자각몽-다섯 가지 색'을 선보이는 등 서울과 런던에서 다수의 개인전을 열고 현재 모교 조소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23 아워세트: 레벨나인 X 손동현 손동현(98동양)

손동현 동문의 전시 '2023 아워세트: 레벨나인 X 손동현'가 지난 9월 5일부터 오는 12월 17일까지 수원시립아트스페이스광교에서 열린다. 레벨나인은 내일의 문화 경험을 고민하는 기획자, 프로그래머, 그래픽디자이너, 공간디자이너, 모션디자이너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창작그룹이다. 손동현은 레벨나인과 함께 현실 공간과 가상 세계를 동시에 탐색했다. 이번 전시는 특히 예술적 상상으로 구현된 시공간, 가상의 세계를 보여주는 작품에 주목했다.



2023.9.5.~12.17.

손동현은 전통적 동양화론을 현대적 어법으로 재해석함으로써 과거의 것을 현재화한다. 손동현과 레벨나인의 협업은 서로의 작업 방식이 더해져 완성되는 창의적 협업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편 손동현은 'Figures'(2018, 제주 갤러리2 중선농원), 'Jasmine Dragon Phoenix Pearl'(2017, 서울 송은아트스페이스) 등의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2017년 문화예술발전유공자 포상,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을 받았다.

당신이 바라는, 누군가 바라보는 한승구(00조소)

한승구 동문의 개인전 '당신이 바라는, 누군가 바라보는'이 지난 9월 28일부터 오는 6월 2일까지 경주 솔거미술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솔거미술관 융복합 기획전으로 미술과 다른 분야의 융합과의 통합으로 새로운 예술세계를 넓혀가는 예술가들의 작품을 지역민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추진됐다. 한동문은 군중 속에서 자아가 어떻게 표출되고 숨겨지는지에 대해 조형과 영상, 온라인 미디어, 가상현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표현해 오고 있다. 작가는 이번 작품 'skin of skin'은 동식물의 자기 보호 기능인 미미크리(mimicry)에서 차용한



2023.9.28.~10.6.

작품이라고 밝혔다. 한동문은 "이번 전시는 개인의 위장, 보호 위협의 욕망을 함축해 보여준다. 빛으로 자아를 노출시켜 화려하게 위장하고, 때로는 자아를 주변 환경과 일치시켜 은신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한다. 한편, 한동문은 모교 조소과 졸업, 서강대학교 영상대학원 예술 공학과 졸업, 국민대학교 입체미술과 박사를 졸업하고 현재 경기과학기술대학교 미디어디자인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나의 유령 Part II 이재현(02서양)

이재현 동문의 개인전 '나의 유령' Part II가 지난 10월 4일부터 28일까지 이태원동 갤러리SP에서 개최되었다. <꽃밭 속의 형상>과 <뷰어>, <아이들> 연작을 포함한 20여 점으로 이루어졌던 Part I에 이어 Part II는 <아이들> 연작을 중심으로 한 인물화 66점을 선보인다. 이동문의 작업에서 인물은 하나의 몸에 여러 얼굴이 중첩되어 때로는 둘 또는 서넛이 합쳐져 있다. 얼굴의 이목구비는 그리고 지워낸 반복된 붓질로 뿌연 막이 입혀진 듯 현실에서 멀어져 보인다. 이번 전시는 이동문이 지속해서 탐구해 온 형상과 풍경의 관계를 넘



2023.10.4.~10.28.

어 인물의 형상에서 내포하는 실존적 자아의 존재에 좀 더 집중한 인물화를 중심에 둔다. Part I에서 형상과 풍경을 오가며 그려왔던 작가의 행보가 점차 온전히 인물로 무게가 옮겨가고 있는 변화의 과정을 짐작해 볼 수 있었다면, Part II에서는 시간과 국적을 초월한 지워지고 중첩된 얼굴의 분열적이고 이중적인 자아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한편, 이동문은 모교 서양화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갤러리조선(2010, 서울), 플레이스 막(2018, 서울), 갤러리SP(2022, 서울) 등에서 개인전을 개최했다.

모든 순간을 위한 몸짓 박해살(03서양) 외 3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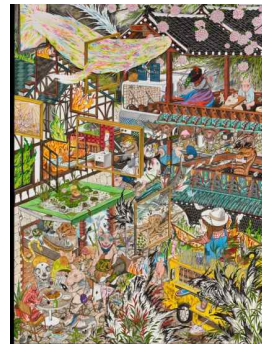
박해살, 설지인(03서양), 최경화(04서양), 최영빈(03서양) 동문의 단체전 '모든 순간을 위한 몸짓'이 경남 산청군 산청박물관에서 지난 9월 3일부터 10월 22일까지 개최되었다. 이번 미술전은 '2023 산청세계전통의약향노화엑스포'를 기념하고자 기획되었다. 특히 지역 문화예술인 활동 활성화를 위한 '2023년도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에 선정된 지역작가와 단체도 참여한다. 미술전에는 작품 15점이 전시된다. 이들은 모교 서양화과 선·후배 사이로 국내·외에서 주목받는 젊은 작가들이다. 이들은 각자 뚜렷한 개성 속에서도 기



역, 느낌, 감각처럼 대상에 가까이 다가가 몸짓으로 사유하고 표현하는 그리기 방식을 추구한다. 또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했을 때 생겨나는 몸짓을 발견하고 서로에게 의미가 돼 주며 작품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산청미술관 박우명 관장은 "무수한 시간과 붓질을 비롯한 몸짓의 결정체인 회화 공간 '모든 순간을 위한 몸짓'을 통해 우리 삶에 생기를 불어넣는 순간을 경험해 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지역작가의 전시개최에 힘써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씻! 김훈규(05동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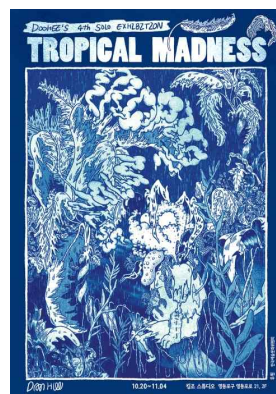
김훈규 동문이 참여한 단체전 '씻!'이 지난 6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에서 개최되었다. '씻!'은 귀여움과 친숙함으로 국내외 미술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김동문, 순이지, 윙핑, 탈라 마다니의 회화와 애니메이션을 소개한다. 네 작가의 공통점은 귀여운 캐릭터와 만화적 요소 및 기법으로 관람객의 시선을 한눈에 사로잡아 작품에 몰입시킨다는 점과 상상력이 가미된 우화적 이미지나 풍자적인 언어유희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점이다. 그러나 친숙한 이미지와 캐릭터들은 단순히 '귀여운' 것에 머물지 않고, 우크라이나 전쟁 및 홍콩의 정치적 문제, 코로나 팬데믹과 미디어의 영향, 파놉티콘으로 상징되는 감시와 이데올로기 등 지금, 여기, 우리를 둘러싼 첨예한 이슈에 대한 네 작가의 날카로운 유머감각과 영민한 해석을 담고 있어 관람객의 적극적인 독해를 요구한다. 한편, 김동문은 지난 2017년 영국 '차드웰 어워드(The Chadwell Award)' 수상자로 선정됐다.

열대광기 김두희(석17공디)

김두희 동문의 개인전 '열대광기'가 지난 10월 20일부터 오는 11월 4일까지 서울 양평동 킴조스튜디오에서 개최된다. 인터넷 방송을 통해 대화를 주고받으며 시청자의 내면을 캐릭터로 표현해 온 김동문의 이번 전시회 주제는 '좀비 사태'이다. 전시는 스튜디오 2층 '경찰서 세트장'에서 진행되며 남해안 별신굿 이수자 이호윤과 함께 만든 작품별 테마곡도 선을 보인다. 김동문은 "자아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상대가 누구냐, 현재 마음 상태



가 어떠냐에 따라 시시각각 달라진다"며 "그러므로 누군가를 단 하나의 속성으로 표현하는 건 그를 제대로 설명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말한다. 김동문의 캐릭터 작품은 채팅 대화 응답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만약 나라면 그 상황에서 어떤 느낌을 받고 어떤 표정을 짓게 될지'를 상상하며 재해석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작가 본인의 수백 가지 모습을 선명하게 드러낸 것이 가깝다. 한편, 김동문은 다수의 영화에도 참여하였다.

콘크리트 프루프 이진영(석조소21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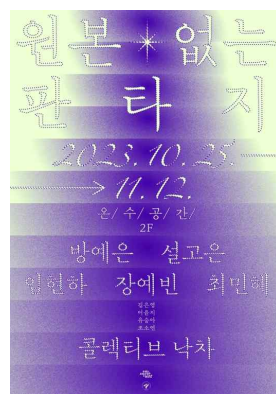
이진영 동문의 개인전 '콘크리트 프루프'가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종로구 성곡미술관 2관 1전시실에서 개최됐다. 이진영은 이분법적 사고와 이를 통해 위계질서를 부여받는 사물들을 탐구하며, 무엇이 가치를 결정하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작업을 시작한다. 그는 온라인 환경에서 사용되는 디지털 언어인 이모지(emoji)의 형상을 콘크리트, 시멘트와 같은 산업 재료로 굳혀내 물리적 형상을 부여하는 작업을 이어왔다. '콘크리트 프루프'는 작품의 주된 재료로 사용된 콘크리트를 의미하는 동시에 구체적인 입증이라는 뜻으로, 가



상 세계를 부유하는 이모지를 감각할 수 있는 대상으로 실체화해 존재를 입증하는 과정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진영의 작품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하트 도상은 이모지를 대표하는 상징이자 소셜미디어를 대변하는 기호이다. SNS '좋아요' 기능을 가리키는 하트의 개수는 '관계'를 집계 가능한 숫자로 환원하고, 그것은 곧 돈으로 환산되어 살 수 없었던 것들의 가치를 변형시킨다. 한편, 이진영은 홍익대학교와 모교 대학원에서 조소를 공부했다. 2022년 유영공간에서 첫 개인전을 했다.

원본 없는 판타지 임현하(석21서양) 외 4명

임현하 동문 외 4명의 단체전 '원본 없는 판타지'가 지난 10월 25일부터 오는 11월 12일까지 온수공간 2층에서 열린다. 순간적으로 생성되었다가 사라지는 모든 사건이 촉발되는 장소, 인식의 축이 흔들린다. 시간보다 더 멀리, 기억보다 더 가벼이 존재하는 이미지들은 영원히 죽지 않고 또 끝없이 새롭게 태어난다. 전시는 데이터 이미지와 물질적 재료 간의 동등한 만남이 가능한 평면 위에서, 예견하지 못했던 현실과 규정할 수 없는 환상이 맞닿은 경계를 흐리게 한다. 그 결과로써 이 공간은, 역설적으로 동시대 시각 환경이 만들어 낸



시각적 잔상이 회화의 매체적 가능성이 된 순간을 의미한다. 임동문은 온라인 알고리즘 공간 속 무수한 비트와 픽셀의 그물망을 헤집고 다니면서 채집한 이미지들을 덧대고, 포개고, 집적한다. 이후 디지털 이미지를 피륙에 인쇄하고 그 위에 바느질로 천을 덧대어 부피를 만든다. 이러한 방법으로 수공예적인 수고로움을 자처하며 디지털 이미지를 더 오래 관찰 가능한 상태로 전환한다. 한편, 임동문은 런던 골드스미스 대학에서 순수미술 학부과정과, 모교 서양화과 석사과정을 졸업하였다.

75분의 1초 장현호(석22동양)

장현호 동문이 지난 8월 1일부터 오는 10월 3일까지 보름산미술관에서 개인전 '75분의 1초'를 개최한다. 장동문은 "인상 깊었던 순간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심코 지나가는 순간일 수도 있다. 그렇기에, 시간을 구상화하고 기록하는 행위는 더욱 중요해진다."며, "한 그루의 나무를 바라보더라도 나와 대상의 위치에 따라, 혹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모두 다르다. 하지만 그 느낌이 정말 나만의 느낌으로 간직(증명, 확인, 인지, 사유, 생각)되기 위해서는 그 순간을 기록해야 할 것이다."고 작가노트에서 밝혔다. 장동문



은 '먹'과 '호분'으로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포착한 나무와 꽃봉오리를 그린다. 찰나의 순간, 빛을 받은 나무를 먹빛으로 표현해냈을 때 사람들은 각자 다른 시간대를 상상하게 된다. 색감을 배제한 먹의 흑백 대비는 장동문이 바라본 시간대를 감추게 되며 감상자는 각자가 느낀 다른 시간을 상상하게 된다. 같은 공간에 있더라도 나무의 시간, 그의 시간, 제삼자의 시간은 다르게 흘러가기 때문이다. 한편, 장동문은 추계예술대학교 동양화과를 졸업한 뒤 모교 동양화과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10월의 전시



많은 사람들

김홍석(83조소)
5.4-12.17
부산시립미술관



화필인생

박노수(46회화1927-2013)
5.26-2024.3.31
박노수 미술관



거기 계셨군요

노원희(66회화)
8.11-11.19
아르코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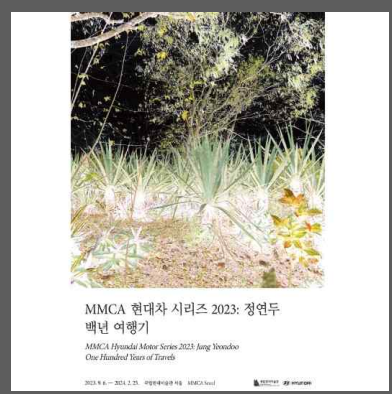
투명한 공간, 사이 거닐기

고명근(83조소)
8.30-11.12
사비나미술관



아워세트

손동현(98동양)
9.5-12.17
수원시립미술관



백년여행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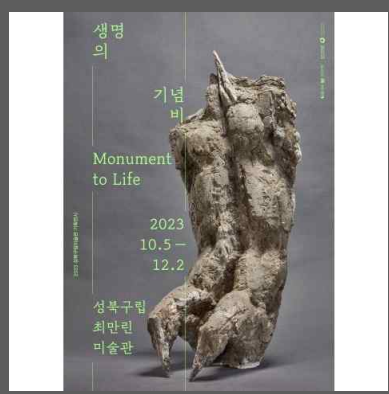
정연두(88조소)
9.6.-2024.2.25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가장 진지한 고백: 장욱진 회고전

장욱진회고전

장욱진(교원/1917-1990)
9.14-2024.2.12
국립현대미술관덕수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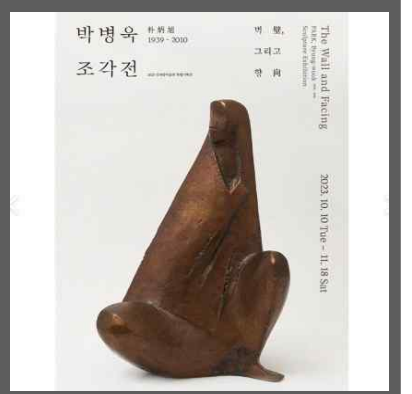
생명의 기념비

최만린(54조소)
10.5-12.3
최만린미술관



시의 기억

박제성(98디자인)
10.7-11.25
갤러리 5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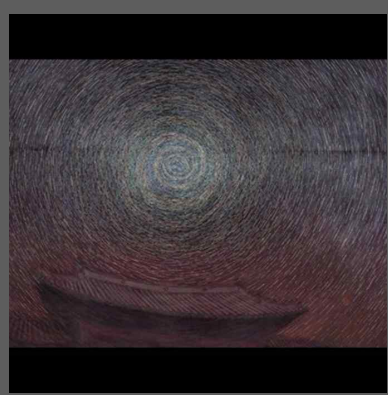
벽 그리고 향

박병욱(58조소)
10.10-11.18
김세중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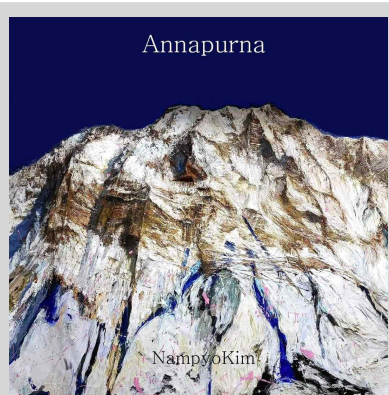
바이블 도자전

서동희 (66응미)
10.12-12.22, 2024.1.12-5.22
바이블 도자예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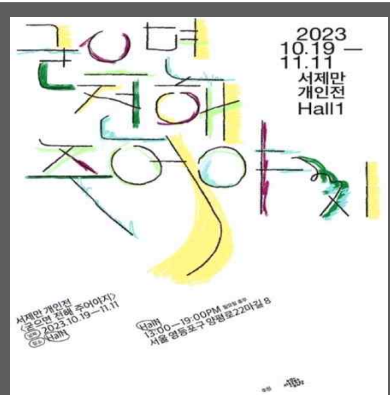
그리움, 곁에 스미다

김덕용(61회화)
10.18-11.21
포스코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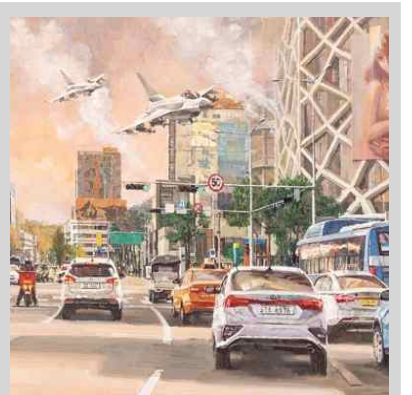
Annapuruna

김남표(91서양)
10.18-2024.1.18
서울시 산악문화체험센터



굳으면 전해 주어야지

서제만(12서양)
10.19-11.11
Hall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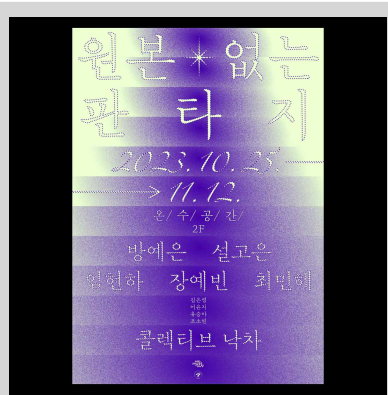
그림과 생각들

권기동(83서양)
10.21-11.10
신촌 아트레온 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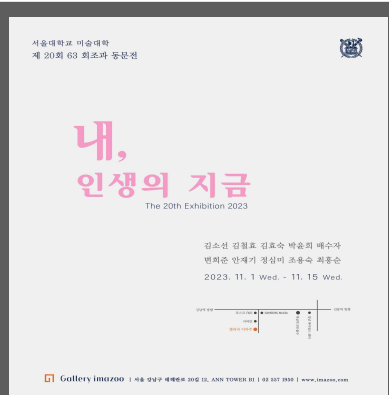
The Costume of Painter

배준성(86서양)
10.25-11.19
갤러리 그라프



원본 없는 판타지

임현하(석21서양)외 4명
10.25-11.12
온수공간 2층



내 인생의 지금

회화, 조소과 63학번 동문
11.1-11.15
갤러리 이마주



소소한 일상

전효순(75회화)
11.15-11.20
갤러리 밌 3층



인천 아시아 아트쇼 2023

한석란(71조소),이민주(76회화)
11.23-11.26
송도컨벤시아2-4홀, D12/D13